

3분기 FDI '역대최대'

총 52.3억 달러 44% ↑

(신고액 기준)

(전년비)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도착기준 32.2억 달러 83% 증가 3분기 누적신고액 129.9억 달러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에 특히 중국 투자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자는 신고 기준 52억3000만달러였다. 실제 투자한 도착 기준으로는 31억2000만달러로, 역대 3분기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는 43.6%, 도착액 기준으로는 83.1%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액은 신고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감소한 12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기준은 1.4% 증가한 79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신고 기준 누적액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작년보다 22.4% 감소했지만 3분기 실적에 힘입어 감소 폭이 대폭 줄었고, 도착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규투자보다는 이미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늘렸다. K방역이 효과를 거두면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기존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3분기 신고액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첨단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투자가 지속해서 유입됐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신고·도착액이 모두 늘며 3분기 회복세를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화권 국가 투자가 신고 기준 40억5000만달러, 도착 기준

24억4000만달러로 각각 47.8%, 53.5% 늘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12억5000만달러, 도착액 2억달러로 작년보다 172.5%, 38.5% 각각 급증했다.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 30억4000만달러, 도착 기준 6억3000만달러로 각각 23.1%, 28.1% 감소했고, 유럽연합(영국포함)도 신고 기준 26억8000만달러, 도착 기준 22억9000만달러로 각각 20.6%, 32.5% 줄었다. 일본 역시 신고 5억1000만달러, 도착 4억3000만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는 인수·합병(M&A),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나 재확산 우려로 인한 위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주간 등 국내 주요 투자유치 행사와 연계한 온라인 상담회, 화상 1대1 심층 면담 등 비대면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프로젝트 투자유치 TF에서 발굴한 화학소재,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프로젝트별로 액션플랜을 점검하고, '산업부-코트라-지자체-기업' 간 공동 협의를 통해 조기 투자유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규제특례기업 투자유치·매출 100배 성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년

성과발생 시작 후 30개사 실적분석 작년 투자유치액 2.6억→올 332억 매출액도 2.5억→220억 대폭 증가

정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의 투자유치와 매출액이 각각 1년 만에 100배 내외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9월 이후 1년간 30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공유 미용실, 공유 주방, 온라인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등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사업을 포함해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은 2019년 9월 2억6000만원에서 2020년 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억5000만원에서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 관련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69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 경력



소분판매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17개 기업 중 '풀무원건강생활'이 지난 6월29일 국내 최초로 롯데백화점과 ORGA 방이점에 개인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단절여성, 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자도 포함돼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심 수소충전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커피찌꺼기 버섯배지 생산' 등이 각각 종이 사용 절감과 커피찌꺼기 처리비용을 연간 1400만원 절감하는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됐다. 추가 5개의 법령 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산업지역에 설치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의 알파 광장, 도쿄의 도쿄타워 인접 부근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현대오일뱅크와 특례 승인업체인 '차지인'은 지난 8일 파트너십을 체결, 2023년까지 주유소,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형 편의점 등에 과금형 콘센트 1000여개를 설치키로 하는 등 향후 전기차 충전소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최대 4년인 실증특례 만료 이후에도 중단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한용수 기자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소싱 일자리정보 순차제공

'AI허브'서 128개 기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2만 2000여개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일자리 정보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AI허브' 사이트에서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8개 클라우드소싱 활용기업, 클라우드소싱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13일부터

기업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추경 2925억원이 투입돼 자연어처리, 자율주행차 등 10대 분야 15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번 사업에서 직접 채용 6000여명, 클라우드소싱 방식 2만2000여명 등 총 2만8000여명 이상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클라우드소싱 일자리는 집이나 이동 중에도 데이터의 수집-정제-가공-품질관리 등 데이터 구축 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일자리로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은퇴자 등 다양한 인력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AI허브' 사이트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8개 클라우드소싱 활용기업, 클라우드소싱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세계식량가격지수 4개월째 상승세

FAO, 9월 전년비 5% 상승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4개월째 상승세다. 곡물과 유지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설탕·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13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95.9포인트) 대비 2.1% 상승한 97.9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2.5에서 2월 99.4, 3월 95.1, 4월 92.4, 5월 91.0으로 하락하다, 6월 93.1, 7월 94.0, 8월 95.9에 이어 9월까지 상승세다.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된다. 2014~2016년 평균이 100이다.

품목별로 곡물과 유지류 가격은 상

승한 반면, 설탕·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유제품 가격은 안정세다.

곡물은 지난 8월보다 5.1% 상승한 104.0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 중 밀은 남반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건조기후가 유럽 내 겨울 밀 파종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옥수수는 유럽의 생산량 감소와 미국의 공급량 감소로, 수수는 중국의 높은 수입 수요로 인해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쌀은 북반구가 수확기에 접어들고 신규 수요가 둔화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는 104.6포인트로 전월보다 6.0% 올랐다. 팜유는 국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재고 수준이 예상보다 적고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전망이 불확실해 가격이 올랐다. /한용수 기자

사물이 스스로 행동 '액션브레인' 개발

ETRI, 산업분야 지능화에 도움줄 듯

국내 연구진이 사물들이 알아서 필요한 행동을 결정해 주어진 일을 하게 만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사물 자율 지능을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능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3일 임무수행에 필요한 단독 및 협업 행동을 사물들이 스스로 결정, 시너지를

발휘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행동을 똑똑하게 실행한다는 의미로 '액션브레인'이라 부른다. 그동안 사물인터넷(IoT)에서 지능 대응 기술은 주로 개발자가 미리 정의한 규칙에 기반해 기계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TRI는 딥러닝 기술인 모방학습, 강화학습과 동적 플래닝 기술을 조합해 여러 사물들이 협동하면서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토록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우선 적용되는 곳은 스마트공장 등 제조분야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용 로봇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로봇의 초기 환경 설정은 물론, 생산 공정 변화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래밍은 전문가의 도움이 매번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면 생산노동자의 행동을 인식, 모방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